

## 하루 200명대... 코로나 '초비상'

광주, 확진자 연일 최고기록에 2주간 특별방역 시행  
전남, 설까지 사적모임 최소화 '도민 잠시멈춤 운동'

한때 코로나19 방역 모범지역으로 꼽혔던 광주·전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숫자가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고, 감염취약계층이 몰려있는 요양병원과 의료기관, 복지시설을 비롯한 12세 미만 백신 미접종 아이들 밀집공간인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 광주시는 결국 긴급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열고 2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전남도는 설 명절까지 사적모임 최소화 등 '전 도민 잠시멈춤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10일 민관 공동대책위원회 회의 후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고위험 시설, 감염 취약 계층 확산 차단을 위해 11일부터 24일까지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양 병원·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재활 시설 종사자의 유전자 증폭(PCR) 진단 검사는 주 2회에서 3회로 늘어났으며, 양로시설, 장애인 거주 시설, 노숙인 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은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됐다.

또 요양병원·시설, 정신 의료기관 등에는 외부면회 전면 금지가 유지되고 종사자에게는 출퇴근 외

다중 이용시설 방문 금지 행정명령 등이 내려졌다.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와 방학 중 돌봄·방과 후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 종사자들도 주 1회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다. 학원, 독서실, 스테디카페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 종사자 중 백신 미접종자도 주 1회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시장은 "취약시설 전반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며 "우리는 지금 가장 강력한 오미크론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만큼 검사 횟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광주에선 이날 오후 6시 현재 하루 기준 역대 가장 많은 156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동구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서 26명이 확진되는 등 집단 감염 사례와 그 접촉자의 확진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 하루 확진자는 지난 5일 91명, 6일 87명, 7일 89명, 8일 92명을 기록한 뒤 9일 133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이는 그동안 하루 기준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한 지난해 1월 26일 TCS국제학교 관련 112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다음날인 이날은

오후 6시 기준인데도 전날보다 23명이나 많은 156명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대규모 확산세의 주범으로는 오미크론 변이가 지목되고 있다. 이날 누적 35명의 확진자가 나온 정신병원과 77명이 누적 확진된 동구 요양병원 관련 일부 확진자 중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광주의 오미크론 확진자도 최근 일주일 사이 110명이 추가돼 누적 259명을 기록하고 있다.

전남에서도 이날 오후 6시까지 64명이 신규 확진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목포 24명, 무안 11명, 나주 10명, 화순 6명, 해남·여수 각 3명, 순천·고흥 각 2명, 광양·곡성·장성 각 1명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오후 도민호소문을 내고 "지난 주, 전남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평균 81명 발생했다. 전국 상황은 진정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도는 오미크론 변이 영향 등으로 비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며 "설 명절까지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는 '전 도민 잠시 멈춤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 동신대서 전지훈련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이 10일 나주 동신대학교 체육관에서 두바이 공연을 앞두고 새해 첫 전지훈련을 하고 있다. 2009년 창단한 세계태권도 연맹 시범단은 미국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결승까지 진출하며 태권도의 매력을 전 세계에 떨쳐 화제를 모았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사적모임 4명 제한·9시 통금 완화 검토

정부, 17일부터 적용 방침

정부가 이번 주에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과 식당·카페 오후 9시 영업종료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와 방

역패스도 상황이 좋아지면 (수위를) 조정할 수 있게 이번 주 수요일에 열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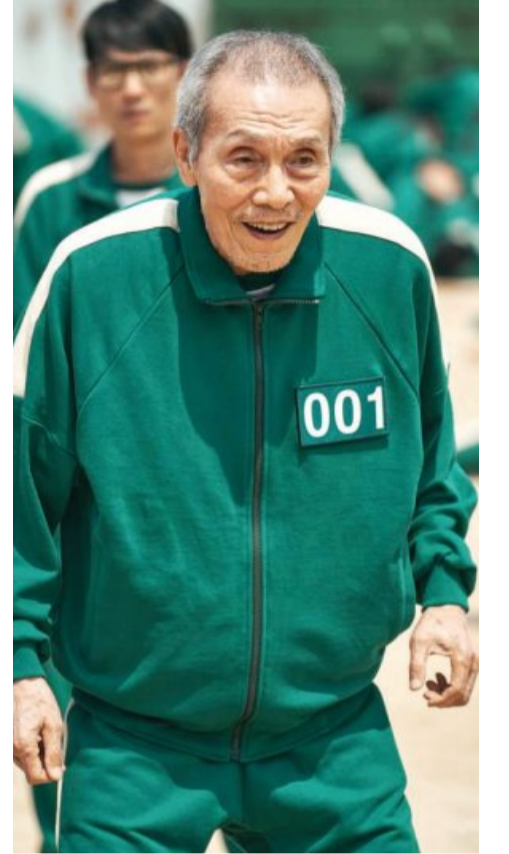
정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7차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책과 거리두기 방역패스 조정방안, 설 방역 대책 등이 논의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12월 18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전국적으로 4명만 허용하고,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등의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도입했다. 이 조치는 이달 16일까지 유지되는데 이번 주에 조치의 연장 또는 조정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백신 3차 접종 확대와 거리두기·방역패스 효과로 신규 확진자가 7천명대에서 3천~4천명대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좋아진 만큼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오영수 '세계인의 깐부'

'오징어 게임' 출연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 남우조연상 수상  
한국 배우로는 최초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배우 오영수(78)가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에서 연기상을 거머쥐었다. <관련기사 17면> 오 씨는 10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비벌리힐스 호텔에서 열린 제79회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부문 남우조연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 배우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 '기생충', 2021년 '미나리' 출연진도 이루지 못한 성과다.

오 씨는 올해 세 번째로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에 도전하는 '석세스'의 키에라 컬킨을 비롯해 '더 모닝쇼'의 빌리 크루덤, 마크 듀플라스, '테드 라소'의 브렛 골드스타인 등 경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상을 받았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은 456억원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벌이는 서바이벌 게임을 그린 작품이다. 오 씨는 게임 참가자 오일남 역을 맡았으며 '깐부 할아버지'라는 별칭을 얻었다.

오 씨는 이날 넷플릭스를 통해 "수상 소식을 듣고 생애 처음으로 내가 나에게 '괜찮은 놈이야'라고 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제 '세계 속의 우리'가 아니고 '우리 속의 세계'라면서 "우리 문화의 향기를 안고, 가족에 대한

한국인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오영수. /연합뉴스

사랑을 가슴 깊이 안고, 세계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TV드라마 남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던 이정재 수상은 아쉽게 불발됐다. 이 부분은 '석세스'의 제레미스트롱에게 돌아갔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다시 강추위... 광주·전남 낮에도 영하권

전남 서해안 강풍특보

광주·전남지역에 낮 시간대에도 영하에 머무는 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겠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1일과 12일 광주·전남은 대체로 흐리고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강한 바람을 동반해 춥겠다.

11일부터 12일 아침 사이 전남서해안에는 초속 10~16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

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낮 최고기온은 영하-1도가 되겠으며,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2도 낮 최고기온은 0-4도 분포를 나타내겠다. 15일 이후 한기를 동반한 기압골의 남하가 다소 누그러져 낮 최고기온이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해상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나,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과 시설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탁상행정 ▶6면

굿모닝 여행 - 로컬여행 강진·구례 ▶18·19면

광주FC 필기표 교체 약일까 득일까 ▶2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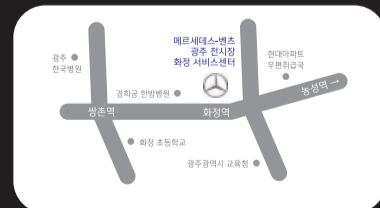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EQS  
THIS IS FOR YOU.

EQS

This is for you.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 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확장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영남동대로 516(수완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영남대로 603(법동 20(소문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영남동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S 450+ AMG Line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 3.8, 도심 : 3.8, 고속도로 : 3.7 1회 충전거리(km) : 478, 공차중량(kg) : 2590, 배터리 용량(kWh) : 107.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면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용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